

CP 금리, 금융위기 이후 최고... 기업 자금 조달 '빨간불'

9일 기업어음 91일물 금리 5.02% CP-CD 금리 격차 한달 사이 35배 금융당국, ABCP 매입 확대 추진

기준금리인상,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 흥국생명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중도상환) 미행사 등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여러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고강도 긴축기조에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쳐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일 대비 4bp 상승한 5.02%로 양도성에급증서(C

D) 91일물 금리(3.97%)보다 105bp(1bp=0.01%포인트) 높았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지난 9월 30일(3bp)에 비해 한 달여 만에 35배 된 수준이다.

이같은 CP와 CD의 금리 격차(스프레드)는 코로나19사태로 단기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졌던 2020년 4월 9일(105bp) 이후 최대 격차이다.

통상 CP와 CD 금리는 기업과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도 수준을 나타낸다. CP와 CD 금리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은 은행의 신용도에 비해 기업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CP-CD 스프레드의 격차는 지난달 25일 52bp 27일 61bp에 이어 이달 1일 70bp, 3일 87bp, 4일 91bp로 계속 확대됐다.

CP의 주요 자금 출처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급감해 CP 금리를 끌어올린 것이 스프레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 7일 기준 개인 MMF 설정액은 15조9885억원으로, 금투협이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지난달 7일 기준 설정액(17조4375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무려 1조4490억원이 빠졌다.

자금 경색, 은행의 예·적금 금리 상승 등에 따라 MMF 자금이 은행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자금 경색의 원인이 되는 자산유동화기업

어음(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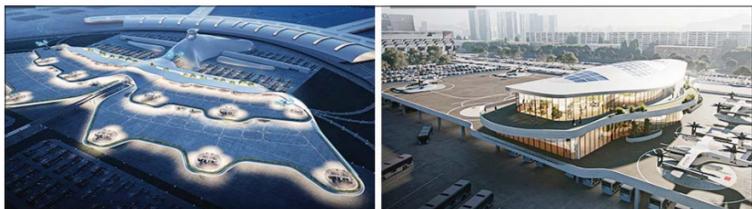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들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이달 중 중소형 증권사의 ABCP를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또한 산업은행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중 2조원을 지난달 27일부터 증권사 CP 매입에 투입한 데 이어 ABCP 매입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안정화 대책에도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CP 금리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잡히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는 강한 편이지만 여전히 신용시장 불안 심리는 쉽게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긴축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CP 3개월물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 중심에는 크레딧 시장이 있고 금리 인상이 계속될수록 제2, 제3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통화 긴축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간 내 신용채권시장 위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국형 버티포트 컨셉디자인 이미지.

/현대건설

현대건설 한국형 버티포트 컨셉디자인 공개

국내 UAM 생태계 조성 박차

현대건설이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UAM 버티포트'의 컨셉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하고 국내 UAM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건설은 오는 1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2 K-UAM Confex'에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KT, 대한항공과 함께 'K-UAM 원 팀'으로 참여해 국내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버티포트의 미래비전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K-UAM 원 팀 컨소시엄'은 이번 행사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에 대한 참여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국내 도

심 입지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버티포트의 컨셉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한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버티포트 컨셉디자인은 현대자동차와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미국 JFK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을 설계한 글로벌 공항전문 설계회사 겐슬러(Gensler)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업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현대건설은 버티포트 운용 효율성과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향후 도래할 한국도심 버티포트 유형을 ▲공항연계형 ▲빌딩상부형 ▲복합환승센터형 ▲개발지 모듈러형 등 총 4가지로 구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국내 채권금리 '썰렁'

금투협,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지난달 국내 채권 금리가 큰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빅스텝 금리인상과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심해지면서 단기 및 중장기 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치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내놓은 '2022년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통해 "월초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 심리 완화, 미국의 높은 물가 지속에 따른 연준 최종 기준금리 상승(예상 5%)에 따른 고강도 긴축 우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으로 국내 금리는 큰 폭 상승했다"며 "중순이후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한은 기재부의 채권시장 개입 등으로 일부 하락 전

환했다"고 설명했다.

10월 채권 발행규모는 금융채, ABS, 회사채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8조 8000억원 감소한 5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잔액은 회사채, 통안증권, 금융채 등의 순발행이 1000억원 감소하면서 259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신용경색에 따라 크레딧물 수요 감소로 큰폭 확대됐다.

10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발행은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크레딧물 수요 감소로 전월 대비 1조 1144억원 감소한 3조7032억원 발행됐다.

/박미경 기자

“리츠, 부동산 베이스 안전한 배당상품”

리츠협회 '상장리츠 투자간담회' 협회장, 주가 하락 아쉬움 토로

“당장 리파이낸싱(자금 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 기간이 돌아오는 게 아닌데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쳐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10일 한국리츠협회는 서울 여의도 컨싱턴 호텔에서 '2022년 하반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리츠시장 관련 제언과 상장리츠사들의 IR(투자설명회) 브리핑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협회장과 조준현 정책본부장, 상장리츠 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상장리츠는 총 21개, 상장리츠의 시가 총액은 7조1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보다 수익률이 높았으나 6월 이후 역전당해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준현 리츠협회장은 “국내 리츠는 초우량자산을 담고 있다”며 “만약 리파이낸싱 기간 돌아온다하더라도 워낙 담보 가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자 대출 협상을 벌일 때 유리한 위치”라고 말했



10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컨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다. 이어 “대부분의 계약에서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임대료를 반영하게끔 계약이 돼 있다”며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의 본질 가치 따져볼 때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상장 리츠는 개발형 자산을 담고 있지 않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 주로 개발이 완료된 건물로부터 월세를 받는 인컴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고랜드 PF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상장리츠의 주가도 덩달아 크게 하락한 상태다.

조 협회장은 “리츠는 부동산을 베이스로 한 안전한 배당상품이라는 걸 투

자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며 “특히 은퇴자금으로 사놓고 배당받으며 생활하는 배당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조준현 본부장은 “부채비율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가 늘어나면 배당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며 “단, 임대료 상승을 통해 일부 커버가 가능하며, 대출만기가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 리츠 중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올해 10%, 2023년 24%, 2024년 30% 등의 순이다”라며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배당률에 점진적으로 미미하게 반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롯데건설, AI 활용 현장안전·품질 강화

시각데이터 솔루션 개발

롯데건설이 건설현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시각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각데이터 솔루션은 유디엔에스와 공동개발한 '크랙뷰어(Crack Viewer)', 지와이네트워크스와 공동개발한 '스테이지(Stage)'로 구성됐다.

'크랙뷰어'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에서 콘크리트의 머리카락 굵기 만한 미세 균열을 식별하고 크기를 측

정해 자동으로 균열 관리대장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기존의 균열 관리는 근로자가 직접 균열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사다리 작업 등 위험성이 높았다.

'스테이지'는 타워크레인이나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공사 진척도를 자동 산출하는 기술이다. 이미지상의 거푸집, 철근 등 객체 분석을 통해 공사단계를 유추하고 그에 맞는 색상으로 표현함으로써 한눈에 공사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콘크리트 균열을 촬영(우측)하고 이를 태블릿PC에서 확인(좌측)하는 모습, /롯데건설

또한, 이미지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해 공사 진척도와 함께 분석해 증별 생산성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작업의 예상 소요기간 예측하고 인원 투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김대환 기자